

화학제품은 상표가 필요 없다!

태평양, 국내 상표 등록건수 1위 ... 화장품 · 제약이 싹쓸이

국내기업 중 상표를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화장품 메이커인 태평양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태평양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상표 3462건을 등록해 1위에 올랐고, 2위는 롯데제과로 1444건, 3위 농심은 1105건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685건을 등록해 5위를 차지했다.

태평양은 주력제품군을 중심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네즈, 마몽드 등 화장품과 세제비누 등 생활용품에 대한 등록이 전체 상표권 등록건수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 등록건수 상위기업 중 주력상품 상위 등록현황(2000.1-2005.4)

회사명	등록건수	주력상품	주력건수	점유율(%)
태평양	3,462	화장품	2,910	84.1
롯데제과	1,444	제과	1,374	95.2
농심	1,105	제과	983	89.0
삼성전자	685	전자 · 정보통신	403	58.8
동아제약	582	약제	404	69.4
LG생활건강	461	화장품 · 세제	405	87.9
애경산업	409	세제	381	93.2
크라ун제과	404	제과	313	77.5
해태제과식품	374	제과	338	90.4
나드리화장품	371	화장품	360	97.0
동화약품	327	약제	208	63.6
동양제과	320	제과	220	68.8
일양약품	320	약제	174	54.4
해태음료	316	청량음료	173	54.7

+ 상표등록 100대기업 중 주력상품 점유율 50% 이상으로 등록건수 300건 이상 기준

상표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0대기업은 제과분야가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15개, 전자 · 정보통신 13개, 의류 11개로 나타났다.

화학기업은 100대기업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 가장 많은 상표를 등록한 외국기업은 일본 귀금속 가공기업인 산리오(627건)며 미국 인쇄물 엔터테인먼트인 디즈니엔터프라이즈(585건), 유통기업인 미국 월마트스토어스(345건) 순이다.

<화학저널 2005/06/14>